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 및 푸드네오포비아 정도에 따른 한식에 대한 정보인지 수준 및 인식, 친밀도에 관한 차이 연구

정희선·윤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¹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formation Awareness, Perception and Familiarity on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Food Neophobia Degree

Hee-sun Jeong · Ji-young Yoon[†]

Major in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¹Department of Le Cordon Bleu Hospitality Management,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explain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female immigra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Korean food culture. **Methods:** Exploratory research was performed by conduct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A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recruit 289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ir level of information awareness, perception and familiarity with Korean food culture. **Results:** Female immigrants' mean FNS score was 3.70. FNS score decreased in women from Northeast Asia, women who received higher education, and in urban women. The level of information awareness of Korean Food culture was 3.47, which was above average. Women from Southeast Asia had a higher level of awareness about cooking methods and table setting. Females living in the countryside and those who had lived for more than 7 years in Korea had higher levels of information awareness than other groups. Women from Southeast Asia perceived that Korean food is spicy; on the other hand, women from Northeast Asia discerned that Korean food is pungent and is prepared scientifically. The neophilic group more positively recognized Korean foods based on taste and nutritional value than did the neophobic group. Subjects living in the countryside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nutritional value, scientific aspects and artistry higher.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the neophilic group and immigrants who had lived for more than 7 years in Korea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amiliarity with Korean food culture. **Conclusion:** The findings provide an initial step towards developing a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adapt and to become familiar with Korean food cultur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rsonal traits for accepting a new food culture.

Key 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 Korean food culture, food neophobia, information awareness, perception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사회의 국제화, 결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국제결혼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전체건수는 23,316건이며 이 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69.1%에 달하는 16,152건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중

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5).

외국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의 적응이 쉽지 않으며 특히 한국 식생활에의 적응은 매우 어려운 것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Yoon, Department of Le Cordon Bleu Hospitality Management, Culture and Tourism Divis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04310,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1-8340-1042>
Tel: +82-2-2077-7372, Fax: +82-2-2077-7319, E-mail: yjy0823@sookmyung.ac.kr



으로 보고 되고 있다. Sim YH(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음식의 매운맛, 짠맛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Han YH 등(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중 72% 이상이 한국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매운맛과 짠맛, 냄새와 색깔의 거부감, 조리방법 적응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Lee JS (2012)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과는 다른 자극적인 한국음식의 맛, 생소한 조리법과 식재료, 조리용어 이해의 어려움 등 한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과 다른 음식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개인 및 가족의 신체건강, 가족의 화합, 주부 역할의 확립 등 음식을 통하여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식에 대한 적응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Park YS & Chung YS 2005, Lee JS 2012).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한식문화 적응을 위한 노력은 다문화가정 구조가 익숙해지고 있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새로운 음식문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또한 새로운 음식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가진 내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생지(Kim JH & Kwak DW 2010), 모국과 다른 식습관이나 경제적 수준(Kim HR 등 2011), 타국에서의 거주기간(Park HM & Moon ST 2008, Lee JS 2012), 나이(Kim JH & Kwak DW 2010), 새로운 음식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Lee JS 2012)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새로운 음식문화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람마다 새로운 음식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 즉 개인의 푸드네오포비아(food neophobia) 정도도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다(Frank RA & Kalisewicz S 2000, Tuorila H 등 200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에게 새로운 음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 특성(모국, 학력, 종교)과 한국 거주 특성(거주지역, 거주기간, 가족구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개인별 푸드네오포비아 정도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여성이민자들의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한국음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식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인식도 및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 10월~2014년 2월,

전통한국음식 체험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5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8.3%), 불성실한 응답 및 미기입 설문지를 제외하고 28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한식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포함하였다. 한식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은 한식 조리법, 식재료, 대표메뉴, 발효식품, 상차림의 인지 정도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1: 전혀 모른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식에 대한 인식 부분은 전반적인 한식의 맛, 한식 영양가의 우수한 정도, 한식 담음새, 매운맛, 짠맛, 자극적인 맛, 조리의 용이성, 발효음식의 우수성 등 8문항, 한식의 친밀도는 한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 한식에 대한 애착, 조리나 외식시 한식의 선택 정도, 한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5: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구성은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태도, 인식, 기호도, 적응도, 선호도 및 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식생활 및 식습관에 관련된 선행논문(Yoon HR 2005, Shin BG & Kwon YJ 2010, Hyun KJ & Kim YS 2011, Cha SM 등 2012, Kim JH 등 2012, Kwak YW 등 2012, Park SJ 등 2012)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각각 번역되었으며, 이 때 각 언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자 4명이 연구자와 함께 설문 의도를 파악하며 번역하였다. 각국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인 각 5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실시 중에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되 조사관을 배치하고 1:1 면접을 부분 적용하여 설문진행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에 관해서는 출신지역, 학력, 종교 등의 개인 기본 특성요인과 한국내 거주지역,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 한국거주 특성요인을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한식 정보 수준 및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음식이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 정도도 한식의 인식과 친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별 푸드네오포비아 정도를 측정하여 한식의 수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는 새로운 음식을 회피하는 경향(Pliner P & Hobden K 1992)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Pliner P & Hobden K(1992)에 의해 개발된 푸드네오포비아 측정 도구로써 각 항목들은 소비자들의 친숙하지 않은 음

식에 대한 반응을 친숙도와 섭취의향을 함께 접목시켜 만든 10개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 1점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성향이 약한 것을 의미하며 7점은 신음식 거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분석방법

응답자의 개인 특성과 한식 관련 정보수준, 인식도 및 친밀도 등 조사항목의 기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한식 인지 수준, 인식 및 친밀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및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국적은 베트남(37.0%), 중국(31.5%)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분석의 편의상 중국, 일본, 몽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동북아시아(n=128)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에 속해 있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n=161) 두 지역으로 나누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0.8%)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46.0), 불교(34.6%), 기독교 또는 천주교(19.4%) 순이었다.

한국거주 특성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65.1%)하는 여성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34.9%)보다 많았으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하 36.7%, 4-6년 38.1%, 7년 이상 25.2%로 조사되었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성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정(남편 또는 시부모 등 포함)이 42.2%,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이 57.8%로 조사되었다.

이주여성들의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항목을 이용하여 신음식 수용정도를 두 그룹으로 나누기 위하여 항목 1, 4, 6, 9, 10을 역코딩한 전체평균은 3.70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를 바탕으로 개인특성 및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Table 3,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들(3.86)이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들(3.47)에 비해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여성들이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또한 현재 주거지역이 도시(3.51)인 경우 농어촌 지역(3.84)에 사는 여성들보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Homeland	China	91	31.5
	Northeast Japan	30	10.4
	Asia Mongolia	4	1.4
	(n=128) Uzbekistan	1	0.3
	Kyrgyzstan	2	0.7
	Southeast Vietnam	107	37.0
	Philippines	26	9.0
	Asia Cambodia	16	5.5
	(n=161) Thailand	10	3.5
	Indonesia	2	0.7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d	86	29.8
	High school graduated	118	40.8
	≥ College	85	29.4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56	19.4
	Buddhism	100	34.6
	No religion, other ¹⁾	133	46.0
New food Acceptance	Neophilic	128	44.3
	Neophobic	161	55.7
Living area	Countryside	188	65.1
	Urban	101	34.9
Settlement period in Korea (yr)	≤3	106	36.7
	4-6	110	38.1
	≥7	73	25.2
Family member	Only adult	122	42.2
	Including children	167	57.8
Total		289	100

¹⁾ Including unification church (2).

동북아 출신여성, 고학력 소지자, 도시 거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개인적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정도를 분석한 Tuorila H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푸드네오포비아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학력 소지자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음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나 이슈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평균값(3.7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은 그룹(neophobic group)과 낮은 그룹

Table 2. Food neophobia scale

Item	Mean±SD ²⁾
1R ¹⁾ I am constantly sampling new and different foods	3.56±1.38
2 I don't trust new foods	3.85±1.39
3 If I don't know what is in a food, I won't try it	3.85±1.45
4R I like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3.44±1.40
5 Ethnic foods look too strange to eat	4.11±1.41
6R At dinner parties, I'll try a new food	3.10±1.26
7 I am afraid to eat things I have never had before	3.90±1.45
8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foods I will eat	4.08±1.43
9R I will eat almost anything.	3.41±1.42
10R I like to try new ethnic restaurants	3.60±1.46

¹⁾ Items negative to food neophobia, marked with R, were recoded prior to divide into two groups.

²⁾ 1: strongly disagree ~ 7: strongly agree.

(neophilic group)을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neophilic group 즉, 신음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그룹 안에서도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들(2.97)이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3.15)보다 신음식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거주 지역간 차이를 보여 도시에 사는 여성들의 신음식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neophobic group의 경우 개인 기본특성별 또는 한국 거주 특성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개인특성에 따른 한식 정보 인지 수준

한식정보 인지 수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식 정보에 대한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3.00 이상으로 분석되어 보통이상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한식 조리법과 상차림 정보 인지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는데 두 항목 모두 동남아

Table 3. Food neophobia scal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Food neophobia scale		
		Average	Neophilic (n=128)	Neophobic (n=161)
		Mean±SD ¹⁾	Mean±SD	Mean±SD
Homeland region	Northeast Asia	3.47±0.80	2.97±0.52	4.23±0.46
	Southeast Asia	3.86±0.63	3.15±0.48	4.13±0.35
	<i>t</i> -value	2.064*	2.088*	0.523
Education	≤ Middle school graduated	3.80±0.65 ^b	3.15±0.49	4.16±0.37
	High school graduated	3.79±0.63 ^b	3.09±0.45	4.17±0.40
	≥ College	3.45±0.76 ^a	2.96±0.54	4.18±0.39
	<i>F</i> -value	5.856**	1.567	0.037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3.59±0.73	2.91±0.45 ^a	4.16±0.36
	Buddhism	3.79±0.60	3.23±0.45 ^b	4.12±0.34
	No religion, other	3.68±0.73	3.00±0.52 ^{ab}	4.21±0.45
	<i>F</i> -value	1.505	4.02*	
Living area	Country	3.84±0.65	3.13±0.46	4.16±0.41
	City	3.51±0.77	2.93±0.53	4.19±0.36
	<i>t</i> -value	1.848*	2.232*	0.436
Settlement period in Korea (yr)	≤3	3.77±0.61	3.13±0.39	4.13±0.32
	4-6	3.59±0.72	2.97±0.57	4.12±0.30
	≥7	3.79±0.72	3.09±0.51	4.27±0.55
	<i>F</i> -value	2.095	1.420	2.215
Family member	Only adult	3.71±0.72	3.03±0.53	4.18±0.41
	Including children	3.70±0.66	3.07±0.48	4.16±0.39
	<i>t</i> -value	0.105	0.419	0.453

¹⁾ 1: strongly disagree ~ 7: strongly agree.

* $p<0.05$, ** $p<0.01$

Table 4.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formation awareness on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basic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wareness	Homeland region		Education			Religion			Food neophobia scale	
	Northeast Asia (n=128)	Southeast Asia (n=161)	Middle school (n=86)	High school (n=118)	≥ College (n=85)	Christianity, Catholic (n=56)	Buddhism (n=100)	No religion, Other (n=133)	Neophilic (n=128)	Neophobic (n=161)
Korean Food Recipes	3.03±1.07 ¹⁾	3.57±1.04	3.51±1.04 ^b	3.39±1.03 ^b	3.07±1.15 ^a	3.30±1.14 ^a	3.53±1.04 ^b	3.20±1.08 ^a	3.29±1.102	3.37±1.07
	<i>t</i> =4.321***		<i>F</i> =3.901*			<i>F</i> =2.778*			<i>t</i> =0.603	
Korean Food Ingredients	3.41±0.93	3.60±0.98	3.56±1.00	3.55±0.93	3.41±0.96	3.50±1.04	3.62±0.93	3.44±0.95	3.61±0.907	3.43±0.99
	<i>t</i> =1.686		<i>F</i> =0.656			<i>F</i> =1.050			<i>t</i> =1.154	
Representative Dishes of Korean Food	3.63±0.92	3.71±0.95	3.65±0.96	3.66±1.00	3.71±0.81	3.52±1.14 ^a	3.86±0.83 ^b	3.59±0.91 ^{ab}	3.73±0.874	3.62±0.98
	<i>t</i> =0.750		<i>F</i> =0.084			<i>F</i> =3.271*			<i>t</i> =1.033	
Fermented Korean Food	3.41±1.04	3.59±1.05	3.58±0.98	3.47±1.06	3.49±1.07	3.66±1.23	3.41±1.05	3.51±1.05	3.62±1.020	3.43±1.05
	<i>t</i> =1.425		<i>F</i> =0.277			<i>F</i> =1.410			<i>t</i> =1.535	
Korean Table Setting	3.21±0.92	3.46±0.94	3.40±0.93	3.36±0.94	3.29±0.93	3.52±0.87	3.39±0.99	3.25±0.92	3.34±0.925	3.36±0.95
	<i>t</i> =2.260*		<i>F</i> =0.252			<i>F</i> =1.779			<i>t</i> =0.219	

¹⁾ 1: do not know at all ~ 5: know very well.

p*<0.05, **p*<0.001.

Table 5.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formation awareness on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ing life in Korea

Information awareness	Living area		Settlement period in Korea			Family member	
	Countryside (n=188)	Urban (n=101)	≤3 (n=106)	4-6 (n=110)	≥7 (n=73)	Only adult (n=122)	Including children (n=167)
Korean food recipes	3.53±1.05	2.97 ±1.06	3.11±1.02 ^a	3.23±1.10 ^a	3.81±1.02 ^b	3.17±1.18	3.45±0.99
	<i>t</i> =4.266***		<i>F</i> =10.358***			<i>t</i> =2.160*	
Korean food ingredients	3.61±0.96	3.33±0.95	3.41±0.89	3.37±0.99	3.88±0.93	3.46±1.00	3.55±0.92
	<i>t</i> =2.427**		<i>F</i> =7.367**			<i>t</i> =0.792	
Representative dishes of Korean food	3.71±0.96	3.60±0.91	3.68±0.80 ^a	3.62±1.00 ^a	3.74±1.03 ^b	3.78±0.92	3.59±0.94
	<i>t</i> =0.908		<i>F</i> =0.372			<i>t</i> =1.674	
Fermented Korean food	3.64±0.98	3.27±1.11	3.48±1.06	3.44±1.02	3.67±1.06	3.46±1.15	3.55±0.96
	<i>t</i> =2.852**		<i>F</i> =1.184			<i>t</i> =0.718	
Korean table setting	3.45±0.94	3.16±0.91	3.29±0.85 ^a	3.25±0.92 ^a	3.58±1.05 ^b	3.29±0.95	3.40±0.92
	<i>t</i> =2.581		<i>F</i> =3.910*			<i>t</i> =0.964	

¹⁾ 1: do not know at all ~ 5: know very well.

p*<0.05, *p*<0.01, ****p*<0.001.

출신 여성들이(3.57, 3.03) 동북아 출신 여성들(3.03, 3.46)에 비해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다(*p*<0.001, *p*<0.05). Han YH 등(2011)의 한국식생활 적응요인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중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본인들의 한국요리 실력을 ‘잘한다’ 이상이라고 평가한 빈도가 60.0%로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중국 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식 조리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

들에 비하여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이주여성(3.07) 고졸이하 여성들에 비해 한식 조리법 인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신자가 다른 종교신자나 무교에 비해 한식조리법(3.53)과 대표메뉴(3.86)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네오포비아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한식 식재료, 대표메뉴, 발효음식에 대해서 neophilic group 여성들

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한식 대표메뉴에 대한 인지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도시지역 거주자 보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인지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식 조리법의 경우 농어촌 지역 거주자(3.53)가 도시 거주자(2.97)에 비해 인지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한국 정착년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여성들이 그 미만 거주 여성들에 비해 인지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한식조리법(3.81, $p<0.001$), 식재료(3.88, $p<0.01$), 상차림(3.58, $p<0.05$) 정보 인지도에서 7년 미만 거주자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한식조리법 이외에 각 항목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표메뉴를 제외하고 성인으로만 구성된 가족보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에서 인지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개인특성에 따른 한식 인식

개인특성에 따른 한식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각 항목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한식

은 전반적으로 맛있고(3.91), 영양적으로 우수하며(3.97), 보기에 아름답다(3.94)는 면에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한식이 너무 짜다는 항목 점수는 2.90으로 보통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 Asano K 등(2014)의 중국인 결혼이민자의 한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국인 여성들이 ‘한국음식은 건강하다’라는 점과 ‘한국음식은 맛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5점 만점에 4.00 이상의 평가를 내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Han YH 등(2011)의 연구에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음식의 영양적 우수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기본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동북아 출신 여성들보다 한식을 더 맵다(3.63, 3.27, $p<0.01$)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동북아 출신 여성들이 한식이 자극적(3.27, 3.02, $p<0.05$)이며 한국발효음식이 과학적(3.90, 3.69, $p<0.05$)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한식 인식의 차이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고졸학력의 이주여성들(3.92)이 중졸(3.73)이나 대졸이상(3.64)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한국발효음식을 과학적이라고 인식하

Table 6. Female marriage immigrants' perception of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basic characteristics

Perception	Homeland region			Education			Religion			Food neophobia scale	
	Northeast Asia (n=128)	Southeast Asia (n=161)	Middle school (n=86)	High school (n=118)	≥ College (n=85)	Christianity, Catholic (n=56)	Buddhism (n=100)	No religion, other (n=133)	Neophilic (n=128)	Neophobic (n=161)	
Korean food is delicious	3.94±0.67	3.89±0.84	3.91±0.77	3.93±0.79	3.89±0.75	4.02±0.79	3.95±0.68	3.84±0.81 ^a	4.01±0.68	3.84±0.82	
	<i>t</i> =0.472			<i>F</i> =0.064			<i>F</i> =1.199			<i>t</i> =2.106*	
Korean food is nutritious	3.94±0.75	3.99±0.88	4.07±0.74	3.97±0.82	3.86±0.90	4.23±0.78 ^a	3.94±0.81 ^b	3.88±0.83 ^b	4.11±0.72	3.86±0.88	
	<i>t</i> =0.585			<i>F</i> =1.401			<i>F</i> =3.747*			<i>t</i> =2.603**	
Korean food looks beautiful	3.95±0.85	3.94±0.86	3.93±0.76	4.01±0.90	3.86±0.88	3.80±0.98	4.06±0.81	3.91±0.83	3.97±0.86	3.92±0.85	
	<i>t</i> =0.073			<i>F</i> =0.760			<i>F</i> =1.778			<i>t</i> =0.487	
Korean food is too hot	3.27±0.99	3.63±1.13	3.60±1.10	3.53±1.01	3.27±1.13	3.55±1.00	3.61±1.08	3.34±1.11	3.30±1.13	3.61±1.03	
	<i>t</i> =2.832**			<i>F</i> =2.263			<i>F</i> =1.983			<i>t</i> =2.356**	
Korean food is too salty	2.94±1.07	2.87±1.00	3.02±1.04	2.81±1.04	2.91±0.99	2.63±0.98 ^a	2.97±0.98 ^b	2.96±1.06 ^b	2.86±1.08	2.93±0.98	
	<i>t</i> =0.552			<i>F</i> =1.117			<i>F</i> =2.492*			<i>t</i> =0.585	
Korean food is spicy	3.27±1.04	3.02±0.90	3.00±0.97	3.20±0.94	3.18±1.07	3.45±0.97 ^a	3.10±0.98 ^b	3.03±0.95 ^b	3.05±0.97	3.30±0.97	
	<i>t</i> =2.167*			<i>F</i> =1.193			<i>F</i> =3.763*			<i>t</i> =2.372**	
Korean food is easy to cook	3.07±1.08	3.19±0.94	3.24±0.89	3.01±1.04	3.21±1.05	3.30±1.12	3.05±0.88	3.14±1.04	3.14±1.04	3.14±0.98	
	<i>t</i> =1.007			<i>F</i> =1.688			<i>F</i> =1.139			<i>t</i> =0.033	
Korean fermented food is smart	3.90±0.83	3.69±1.01	3.73±1.02 ^a	3.92±0.86 ^b	3.64±0.93 ^a	3.82±0.93	3.79±0.93	3.76±0.95	3.93±0.92	3.66±0.94	
	<i>t</i> =2.083*			<i>F</i> =2.514*			<i>F</i> =0.090			<i>t</i> =2.403**	

¹⁾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 $p<0.05$, ** $p<0.01$.

Table 7. Female marriage immigrants' perception of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ing life in Korea

Perception	Living area		Settlement period in Korea			Family member	
	Countryside (n=188)	Urban (n=101)	≤3 (n=106)	4-6 (n=110)	≥7 (n=73)	Only adult (n=122)	Including children (n=167)
Korean food is delicious	3.96±0.74	3.81 ±0.81	3.86±0.76 ^a	3.85±0.78 ^a	4.10±0.74 ^b	3.89±0.85	3.93±0.74
	<i>t</i> =1.487		<i>F</i> =2.981*			<i>t</i> =0.526	
Korean food is nutritious	4.08±0.75	3.76±0.90	3.92±0.85	3.95±0.81	4.08±0.82	3.93±0.91	4.00±0.76
	<i>t</i> =3.161**		<i>F</i> =0.954			<i>t</i> =0.749	
Korean food looks beautiful	4.05±0.81	3.74±0.91	3.86±0.88	3.92±0.86	4.10±0.78 ^b	3.87±0.98	3.99±0.74
	<i>t</i> =2.922**		<i>F</i> =1.727			<i>t</i> =1.226	
Korean food is too hot	3.61±1.08	3.22±1.04	3.37±1.06	3.62±1.10	3.41±1.07	3.53±1.15	3.43±1.03
	<i>t</i> =3.013**		<i>F</i> =1.603			<i>t</i> =0.771	
Korean food is too salty	2.89±1.04	2.91±1.00	2.91±0.97 ^a	3.03±1.05 ^b	2.70±1.06 ^a	2.96±1.05	2.86±1.01
	<i>t</i> =0.138		<i>F</i> =2.252*			<i>t</i> =0.831	
Korean food is spicy	3.11±0.97	3.18±0.97	3.08±0.92	3.07±0.90	3.30±1.12	3.20±0.98	3.09±0.96
	<i>t</i> =0.553		<i>F</i> =1.432			<i>t</i> =0.918	
Korean food is easy to cook	3.09±1.05	3.23±0.91	2.94±0.92 ^a	3.29±1.00 ^b	3.19±1.08 ^{ab}	3.17±1.08	3.11±0.94
	<i>t</i> =1.152		<i>F</i> =3.403*			<i>t</i> =0.486	
Korean fermented food is smart	3.87±0.96	3.62±0.88	3.66±0.92 ^a	3.71±1.04 ^a	4.07±0.73 ^b	3.61±0.97	3.91±0.89
	<i>t</i> =2.164*		<i>F</i> =4.713**			<i>t</i> =2.738**	

¹⁾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p*<0.05, *p*<0.01.

고 있었다(*p*<0.05).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에 비해 한식이 영양학적(4.23)이며 자극적(3.45)이라는 인식이 높았던 반면, 한식이 너무 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2.63)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푸드네오포비아 정도에 따라서는 neophilic group에서 한국음식이 더 맛있고(4.01, *p*<0.05) 영양학적(4.11, *p*<0.01)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발효음식이 과학적이다’ 항목을 상대적으로 높게(3.93, *p*<0.01)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neophobic group은 ‘한식은 너무 맵다’(3.61, *p*<0.01),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다’(3.30, *p*<0.01)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이 적은 neophilic group은 한식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며 맛의 수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neophobic group은 한식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며 맵고 짠 한국음식에 거부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Pelchat ML & Pliner P(1995)는 신음식에 거부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신음식 수용도가 낮은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맵고 자극적인 맛을 가진 한식 이외에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순한 맛을 가진 다양한 한식을 소개하고 이를 맛보게 함으로써 한식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고 점차적으로 친밀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한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거주 여성들이 도시 지역 거주 여성들보다 한식의 영양 우수성(4.08, *p*<0.01), 아름다움(4.05, *p*<0.01)을 높게 평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더 맵다고 인식(3.61, *p*<0.01)하고 있었다. 또한 ‘발효음식이 과학적이다’의 항목을 높게 평가했다(3.87, *p*<0.05). 또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음식이 더 맛있다고 평가했으며(*p*<0.05), 한국발효음식이 과학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p*<0.01). 가족구성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발효음식이 과학적이다’의 항목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3.91)이 성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3.61)보다 높게 평가하였다(*p*<0.01).

3. 개인특성에 따른 한식 친밀도

개인특성에 따른 한식 친밀도 분석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한식 친밀도의 전체 평균은 3.72로 조사

Table 8.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iarity on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basic characteristics

Familiarity	Homeland region		Education			Religion			Food neophobia scale	
	Northeast Asia (n=128)	Southeast Asia (n=161)	Middle school (n=86)	High school (n=118)	≥ College (n=85)	Christianity, Catholic (n=56)	Buddhism (n=100)	No religion, Other (n=133)	Neophilic (n=128)	Neophobic (n=161)
Happy when eat Korean food	3.76±0.75	3.71±0.86	3.81±0.80	3.67±0.75	3.74±0.91	3.77±0.91	3.74±0.74	3.71±1.83	3.91±0.68	3.59±0.88
	<i>t</i> =0.457		<i>F</i> =0.781			<i>F</i> =0.089			<i>t</i> =3.408**	
Like Korean food	3.97±0.72	3.75±0.88	3.77±0.79	3.81±0.86	3.98±0.78	3.98±0.84	3.75±0.82	3.86±0.81	4.06±0.76	3.68±0.83
	<i>t</i> =2.243*		<i>F</i> =1.555			<i>F</i> =1.483			<i>t</i> =4.100***	
Feel special when eat Korean food	3.66±0.75	3.60±0.88	3.63±0.82	3.63±0.73	3.61±0.85	3.70±0.82	3.55±0.73	3.65±0.89	3.75±0.80	3.52±0.83
	<i>t</i> =0.610		<i>F</i> =0.011			<i>F</i> =0.660			<i>t</i> =2.354*	
Want to cook Korean food all the time	3.71±0.80	3.68±0.89	3.72±0.86	3.66±0.80	3.72±0.92	3.84±0.89	3.72±0.76	3.62±0.90	3.87±0.78	3.56±0.88
	<i>t</i> =0.276		<i>F</i> =0.161			<i>F</i> =1.400			<i>t</i> =3.083**	
Want to choose Korean restaurant for eating out	3.55±0.81	3.62±0.85	3.52±0.87	3.68±0.84	3.53±0.76	3.68±0.87	3.60±0.82	3.54±0.82	3.66±0.75	3.33±0.88
	<i>t</i> =0.756		<i>F</i> =1.159			<i>F</i> =0.548			<i>t</i> =2.238*	
Satisfied with overall Korean food	3.88±0.73	3.71±0.99	3.76±1.00	3.81±0.85	3.78±0.83	3.73±0.94	3.89±0.79	3.72±0.94	3.97±0.82	3.63±0.92
	<i>t</i> =1.584		<i>F</i> =0.078			<i>F</i> =1.124			<i>t</i> =3.224***	

¹⁾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p*<0.05, *p*<0.01, ****p*<0.001.

대상자들은 한식을 비교적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 기본특성면에서 출신지역, 학력, 종교에 의한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동북아 출신 여성(3.97)이 동남아 출신 여성(3.75)보다 한식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Kim JE 등(2011)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음식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필리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한국음식 적응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HS & Lyu ES(2012)의 외국인의 국적별 한식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도 동남 아시아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한식에 대한 맛과 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음식에 사용되는 향신료의 차이를 지목하고 있다. Shim YH(2008)의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문제 연구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맵고 짠 한국음식 적응을 어려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에 이주해온 베트남 여성들은 농촌 출신이 많아 모국에서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한국음식에 적응할 때 까지 빵, 계란 등 맵고 짜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와 식문화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동남아 여성들의 한식 적응이 어렵고 그에 따라 한식에 대한 호감도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푸드네오포비아에 따른 한식 친밀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neophilic group이

neophobic group에 비해 한국음식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음식에 대한 애착 및 전체적 만족도 부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p*<0.001). 푸드네오포비아 정도는 새로운 음식의 친밀도를 예상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의 하나라는 점(Cohen E & Avieli N 2004)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한식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푸드네오포비아 정도에 따라 한식 경험의 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한식친밀도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한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p*<0.05), ‘한식에 애착이 있다’(*p*<0.05), ‘한식을 먹으면 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 특별한 느낌이 든다’(*p*<0.05), ‘외식시 한식을 선택하고 싶다’(*p*<0.01)의 항목에서 7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여성이 4-6년 거주한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보였다. 또한 ‘한국음식을 늘 해먹는다’는 3년이하 거주 여성들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한국음식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에 있어서도 7년이상 거주 여성이 그 미만 거주 여성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Cha SM 등(2012)의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식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Kim JM 등(2012)의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서의 식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에 따른 한식 친

Table 9. Female marriage immigrants' familiarity on Korean food cultur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ing life in Korea

Familiarity	Living area		Settlement period in Korea			Family member	
	Countryside (n=188)	Urban (n=101)	≤3 (n=106)	4-6 (n=110)	≥7 (n=73)	Only adult (n=122)	Including children (n=167)
Happy when eat Korean food	3.77±0.79	3.67±0.86	3.76±0.75 ^{ab}	3.59±0.89 ^a	3.90±0.76 ^b	3.70±0.92	3.75±0.73
	<i>t</i> =0.919			<i>F</i> =3.393*		<i>t</i> =0.508	
Like Korean food	3.86±0.81	3.83±0.83	3.83±0.84 ^{ab}	3.76±0.81 ^a	4.10±0.79 ^b	3.85±0.91	3.84±0.75
	<i>t</i> =243			<i>F</i> =2.587*		<i>t</i> =0.080	
Feel special when eat Korean food	3.64±0.81	3.59±0.86	3.69±0.76 ^{ab}	3.46±0.85 ^a	3.77±0.85 ^b	3.62±0.93	3.62±0.74
	<i>t</i> =0.432			<i>F</i> =3.530*		<i>t</i> =0.002	
Want to cook Korean food all the time	3.74±0.85	3.60±0.86	3.61±0.82 ^a	3.65±0.93 ^{ab}	3.89±0.75 ^b	3.63±0.95	3.74±0.77
	<i>t</i> =1.334			<i>F</i> =2.797*		<i>t</i> =1.092	
Want to choose Korean restaurant for eating out	3.54±0.89	3.67±0.69	3.63±0.77 ^{ab}	3.42±0.91 ^a	3.78±0.75 ^b	3.60±0.85	3.58±0.81
	<i>t</i> =1.273			<i>F</i> =4.493**		<i>t</i> =0.175	
Satisfied with overall Korean food	3.77±0.90	3.80±0.87	3.71±0.82 ^a	3.68±0.96 ^a	4.04±0.82 ^b	3.75±0.88	3.80±0.90
	<i>t</i> =0.278			<i>F</i> =4.233**		<i>t</i> =0.455	

¹⁾ 1: strongly disagree ~ 5: strongly agree.
p*<0.05, *p*<0.01.

밀도의 경우 기존 연구와 연결지어 보면 한식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한식 섭취가 편안해지거나 애착을 갖고, 외식 때 거부감 없이 한식을 선택하는 등 전체적인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Kim MH(2008)의 연구나 Han YH 등(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외국학생들이나 이주여성들이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타국생활에 따른 모국음식에 대한 향수가 커져 상대적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외국인이나 이주여성들의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음식의 만족도는 정착기간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른 특성과 기존 한국음식 경험 여부등과 결부시켜 다각적인 각도에서 측정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특성 및 신음식 수용정도에 따른 한식에 대한 정보인지 수준, 인식도 및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 289명의 국적은 베트남(37.0%), 중국(31.5%)이 가장 많았으며 출신지역으로는 동북아시아(43.3%), 동남아시아(56.7%)로 나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40.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무교(46.0%), 불교(34.6%), 기독교 또는 천주교(19.4%) 순이었다. 한국거주 특성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많았고(65.1%),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대부분 6년 이하(74.8%)에 속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이 57.8%, 남편 시부모 등 성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42.2%였다.

이주여성들의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분석결과 전체 평균 3.70 수준으로 나타났고, 동북아 출신, 고학력 소지자, 도시 거주 이주 여성들의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신음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식 정보인지도는 평균 3.47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한식 조리법과 상차림은 동남아 출신 여성들의 인지수준이 동북아 출신 여성들보다 높았다. 또한 한식 대표메뉴에 대한 인지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인지 수준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높았고 거주기간이 7년 이상된 여성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한식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맛있고(3.91), 영양적으로 우수하며(3.97), 보기에 아름답다(3.94)는 면에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한식이 너무 짜다는 항목 점수는 2.90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른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동북아 출신 이주여성들보다 한식을 더 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동북아 출신 이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한식이 자극적이며 한국발효음식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에 따라서는 neophilic group이 한국음식이 더 맛있고, 영양학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발효음식이 과학적이다’ 항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neophobic group은 ‘한식

은 너무 맵다',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다'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한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거주 여성들이 도시지역 거주 여성들보다 한식의 영양 우수성,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더 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발효음식이 과학적이다'의 항목도 높게 평가했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한국음식이 더 맛있다고 평가했으며, 한국발효음식이 과학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한식 친밀도의 경우 전체평균 3.71로 결혼 이민자들의 한식에 대한 친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른 친밀도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북아 출신 여성이 동남아 출신 여성보다 한식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네오포비아 정도에 따른 한식 친밀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neophilic group이 neophobic group에 비해 한국음식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 특성에 따른 한식친밀도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분석되었는데 특히 한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짐, 한식에 애착이 있음, 한식을 먹으면 특별한 느낌이 들, 외식시 한식 선택 우선 등의 항목에서 7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여성이 4-6년 거주한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나타냈다.

많은 연구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 특히 가족 생활의 영위에 가장 중요한 식생활 적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자체, 국가 단위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개인적 특성 및 한국 거주 특성에 따라 한식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 기본 특성 중 푸드네오포비아 정도가 낮은 neophilic group이 한식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이 많고, 한식에 대한 친밀도가 높으며 수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특성에 따라서는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한식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이 높아지고 맛에 대한 수용도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들의 한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응하여 가족들과 편안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태도와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을 위해 진행되는 많은 한식문화 교육들은 프로그램 개발시 교육 참여자의 새로운 음식문화에 대한 수용도,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정도 및 한식 친밀도 등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맞춤형

한식문화 교육을 통해 가정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식에 좀더 친밀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다문화 가정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자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전통한국음식 체험 교육에 참여한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 표집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의 편포 우려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 대상을 국적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적별 비교가 어려웠다. 이외에 한국 식문화에 대한 친밀도와 인지도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인 특성 외에도 개인과 연관된 내외부의 다차원적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한식문화 이해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출신 국적별로 균형을 맞춘 표본 선정, 확률적 표본수집에 의한 전국 단위의 조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 Asano K, Yoon JH, Ryu SH. 2014.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Korean J Community Nutr* 19(4):317-327.
- Cha SM, Bu SY, Kim EJ, Kim MH, Choi MK. 2012. Study of dietary attitudes and diet manage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ccording to residence period. *J Korean Diet Assoc* 18(4):297-307.
- Cohen E, Avieli N. 2004. Food in tourism: Attraction and impediment. *Ann Tour Res* 31(4):755-778.
- Frank RA, Kalisewicz S. 2000. Food experience and willingness to try novel foods. *Appetite* 34(3):335.
- Han YH, Shin WS, Kim JN. 2011. Special them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 Korean Stud* 19(1):115-159.
- Hyun KJ, Kim YS. 2011. Development of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Health Soc Welf Rev* 31(4):63-100.
- Kim HR, Paik SH, Jung HW, Lee AR, Kim E. 2011. Survey on dietary behaviors and needs for nutrition services, and developing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pp 20-25.

- Kim HS, Lyu ES. 2012.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Korean food for foreigners living in Busan with regard to nationality. *Korean J Food Cook Sci* 28(2):89-96.
- Kim JE, Kim JM, Seo SH. 2011.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a multicultural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immigrants and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Korean J Nutr* 44(4):312-325.
- Kim JH, Kwak DW. 2010. Research on the ingestion of food and the habit between age group and birth places of female immigrants: Focusing on the Busan region. *Northeast Asia Tour Res* 6(1):77-97.
- Kim JH, Yoo YJ, Song JS.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Korean food,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Korean restaurants in foreigner. *Tour Res* 36(0):45-61.
- Kim JM, Lee HS, Kim MH. 2012. Food adaptation and nutrient intake of female immigrants into Korea through marriage. *Korean J Nutr* 45(2):159-169.
- Kim MH. 2008.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 who prefer Korean foo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 22-63.
- Kwak YW, Nam YS, Jeong HS. 2012. A survey on the knowledge and preferences for Korean food among unmarried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Korean J Food Cook Sci* 28(3):337-347.
- Lee JS. 2012.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 Korean Soc Food Sci Nutr* 41(6):807-815.
- Park HM, Moon ST. 2008.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Agric Educ Hum Resour Dev* 40(2):69-91.
- Park SJ, Kim DJ, Shin WS. 2012. Adaptability and preference to Korean food with foreigners who reside in Seoul,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 17(6):782-794.
- Park YS, Chung YS. 2005.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Korean J Food Culture* 20(1):35-43.
- Pelchat ML, Pliner P. 1995. Try it. You'll like it: Effects of information on willingness to try novel foods. *Appetite* 24(2):153-165.
- Pliner P, Hobden K. 1992.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trait of food neophobia in humans. *Appetite* 19(2):105-120.
- Shin BG, Kwon YJ. 2010. Difference analysis on the cognition, image, attitud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foods among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groups. *J Foodserv Manage* 13(3):311-332.
- Shim YH. 2008. Special them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Transnational field and transnational identity among women marriage migrants in Korea. *J Comp Korean Stud* 19(1):7-43.
- Statistics Korea. 2015. 2014 international marriage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Accessed October 22, 2015.
- Tuorila H, Lähteenmäki L, Pohjalainen L, Lotti L. 2001. Food neophobia among the Finns and related responses to familiar and unfamiliar foods. *Food Qual Preference* 12(1):29-37.
- Yoon HR. 2005. A study o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foods for foreigners in different nationality. *Korean J Food Culture* 20(3):367-373.

Received on Mar.25, 2016/ Revised on Apr.26, 2016/ Accepted on Apr.26, 2016